순천만국가정원 · 습지 '웰니스관광 25선' 선정

문체부 · 한국관광공사 주관, 자연 · 숲 치유분야 대한민국 최고 인정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실시한 '한국형 웰니스관광 25선'에 선정돼 지난 18일 서울 더 플자라 호텔에서 열린 '웰니스관광 25선 운영협의체 발족식'에서 선정패를 수여받았다.

금번 운영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협의체를 운영하며 25선 관광지에 대한 관광 여건 및 수용태세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웰니스관광은 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관광을 하면서 스파와 휴양, 뷰티, 건강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융?복합 관광상품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금번에 선정된 웰니스관광 25선은 한방, 힐링(치유)·명상, 뷰티(미용)·스파, 자연·숲 치유 등 4가지 테마로 분류해 선정됐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자연·숲 치유 분야 전국 4개소 중 한 개소로 선정돼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 관광지이자 웰니스 관광지로 인정받았다.

순천시는 관광객 800만 시대를 맞아 지역자원을 활용해 관광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융·복합 관광 상품인 순천형 헬스투어를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하면서 한발 앞선 관광정책 추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웰니스관광상품의 일환인 순천형 헬스투어는 지역의 121개 헬스투어 자원을 활용해 17개 코스를 개발하여 올해는 1박2일형 힐링코스와 치유코스, 당일형 나들이코스 총 3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앞으로 해외 인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홍보·마케팅과 여행상품 개발, 외국인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종영 기자

신안군, 농촌지도자 핵심요원 지도력 함양교육 실시

친환경적으로 해충 퇴치하는 요령 습득

섬들의 고향 신안군에서는 지난 18일 농촌지도자 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촌지도자 지도력함양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의 핵심 주역인 농촌지도자 군·읍면단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생태도시연구소 이기상 소장을 강사로 모시고 '해충방제와 천적들'이란 내용으로 농작물에 유해한 해충들의 생리를 익혀 친환경적으로 해충을 퇴치하는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였다.

농촌지도자신안군연합회장(박경구)은 "과거에 다수확에 치중했던 농업이 지금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유기농업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시대이고, 이에 발맞춰 신안군 농촌지도자 회원 900여명이 한마음으로 뭉쳐 동참하고 농촌지도자의 위상을 높일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광수 농촌지원과장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신안 농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대한민국 친환경 유기농업의 중심축, 성공적인 모델로 안착시키고 싶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신안=박응식 기자

나주시, 나주축협 내 로컬푸드 전용판매대 설치 운영

농가 소득 향상 ·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확대 기대

나주시와 나주축협이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에 따른 소득향상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에 상호 간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이사장 강인규)은 나주축협(조합장 김규동)과 지난 19일, 오후 4시 청사 시장실에서 로컬푸드 출하 협약식을 체결, 나주축협 하나로마트(대호길 19) 내 로컬푸드 전용 판매대 운영 방침을 논의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공동 협력해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적 운영되고 있는 판매대를 고정화하고, 소비자의 호응이 좋을 경우 점진적으로 판매 공간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나주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혁신도시 내 2개 공공기관과 지난 5월 23일부터 출하를 개시한 광주 남구 로컬푸드직매장을 비롯해, 지역 내에도 새로운 판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고령농, 영세농의 소득 향상 측면에 큰 기대를 갖게 됐다.

강인규 이사장은 "지역 농가의 소득 증가와 소비자의 먹거리 선택권 확대를 위한 나주시의 노력에 나주축협이 동참해줘서 반가운 마음"이라며, "이번 협약식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민관협력의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규동 조합장 역시 "나주로컬푸드의 공익적 측면에 나주축협의 풍부한 영업 노하우가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는 한층 더 증대될 것"이라고 화답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광양시, 도심 속 무더위 탈출 어린이 물놀이 시설 운영

29일부터 이틀간 마동근린공원…자녀들과 함께 무더위 탈출

광양시는 올해로 3년째 이어지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마동 근린공원에서 이틀간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 기간 중 도심 속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시는 물놀이장시설인 에어바운스 3면과 종합상황실, 방송시설, 의무실, 탈의실, 휴식쉼터 등을 갖추고 물놀이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물놀이 시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요금은 1인 1,000원이다.

물놀이시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과 보호자를 동반한 유아까지 가능하며,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늘막과 텐트 등 휴식공간도 제공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풍선아트, 브러치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119소방구조대에서 1일 1회 물놀이 준비운동과 함께 인명구조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료지원 약품 등을 준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주옥 사회재난팀장은 "폭염에 지친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바쁜 일상에 계곡 및 바다로 놀러가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자녀와 함께 마동근린공원을 찾아올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시 철저한 폭염대비로 시민건강 챙긴다

순천시는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에 대비해 시민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지난 6월 7일 여름철 자연재난 및 시민생활 편의 시책 보고회를 갖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머리를 맞대면서, 재해발생 시 대응 계획,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관내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에 나섰다.

시민 65%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은 단지 내 감시와 순찰업무 외 주차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등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9월 관내 151개 아파트 단지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 현황을 조사했으며,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22개 단지 100여개소에 올해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폭염대응 상황반을 가동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경로당 등 92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과 다양한 공유 공간을 확보해 시민에게 개방하고, 공무원, 이·통장, 노인돌보미 1370명으로 재난취약계층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홀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1:1 결연사업과 헬스콜 안부전화, 행복 24시 등 방문건강 관리와 노노케어, 고독사 지킴이단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메르스, 일본뇌염, 비브리오 패혈증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내 7개 병원을 감염병 의료 기관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료급식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조례호수공원, 장대공원 등 분수와 물놀이 시설을 점검하고 관내공원, 체육시설, 물놀이터 산책길, 화장실, 정자 등 편의시설의 정비와 보수를 모두 마쳤다.

순천=김종영 기자